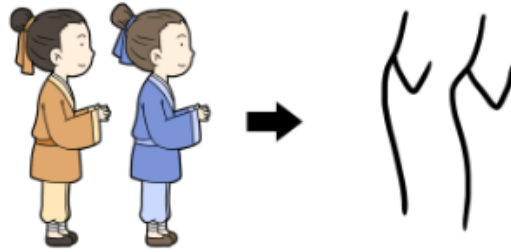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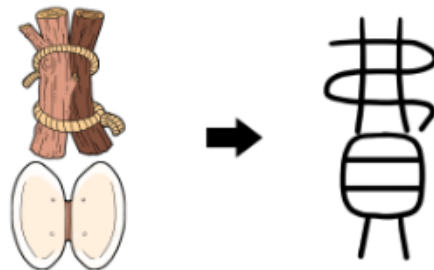
比

견줄 비:

比자는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比자는 두 사람이 우측을 향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본래 比자는 '친하다'나 '친숙하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견주다'나 '비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로 比자는 匕(비수 비)자를 겹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匕자가 부수자인 것으로 착각될 수도 있지만 比자는 엄연히 단독부수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상용한자에서는 관련된 글자가 없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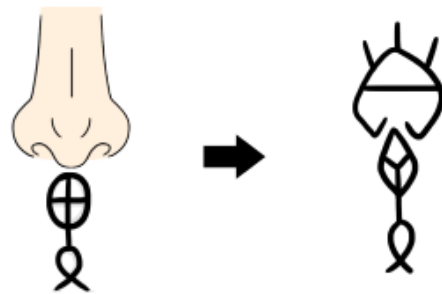
費

쓸 비:

費자는 '쓰다'나 '소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費자는 弗(아닐 불)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弗자는 나무토막을 끈으로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아니다'나 '근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지출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금이 지출되는 것이기에 걱정거리가 늘어나기도 한다. 그러니 費자에 쓰인 弗자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뜻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費자는 '돈이 지출되니 걱정이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鼻

코 비:

鼻자는 '코'를 뜻하는 글자이다. 鼻자는 본래 코를 뜻했던 自(스스로 자)자가 '자기'나 '스스로'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畀(줄 비)자를 결합해 만든 글자이다. 鼻자에 쓰인 畀자는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코와 폐를 연결하는 기관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鼻자는 숨을 들이쉬는 코와 폐를 함께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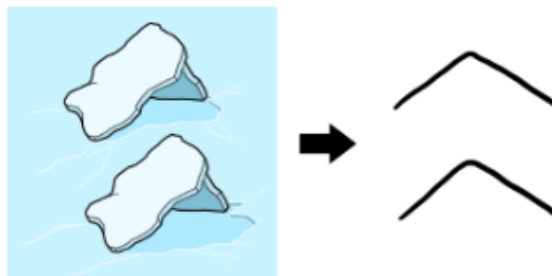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冰

얼음 빙

氷(氷)자는 '얼음'이나 '서늘하다', '영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氷자의 갑골문을 보면 무언가가 솟아오른 凵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얼음이 깨지면서 부풀어 오른 모습을 표현한 凵(얼음 빙)자이다. 평평했던 강의 얼음이 깨지면서 위로 솟구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이것이 물과 관련된 글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水(물 수)자가 더해진 冰자가 등장하였고 이것이 다시 간략화되면서 氷자도 만들어졌다. 다만 지금의 凵자는 얼음과 관련된 부수자 역할을 하고 氷자나 冰자는 단독으로 '얼음'을 뜻할 때 쓰인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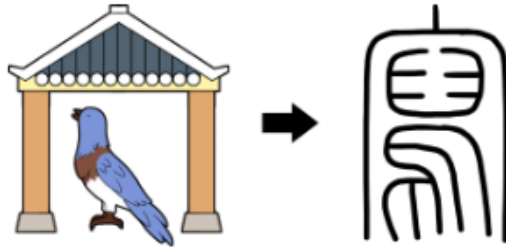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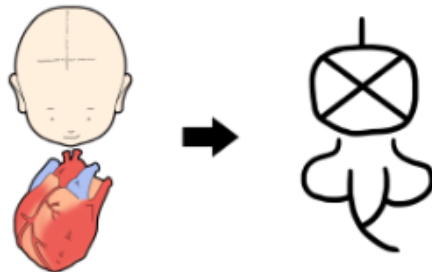
베낄 사

寫자는 '베끼다'나 '본뜨다', '옮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寫자는 宀(집 면)자와 鳥(까치 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鳥자는 '까치'라는 뜻이 있지만, 고대에는 나무로 만든 '신발'을 뜻하기도 했다. 이 신발은 왕을 알현하던 대신(大臣)들이 신던 것이다. 왕을 알현할 때 신던 것이라 아무 데나 벗어놓지는 못했다. 그래서 대신들은 신발을 벗은 후에 항상 집안으로 옮겨놓았는데, 고대에는 이것을 寫라고 했다. 후에 寫자는 '옮기다'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베끼다'나 '본뜨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思

생각
사(:)

思자는 '생각'이나 '심정', '정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思자는 田(밭 전)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囟(정수리 신)자가 들어간 惇(생각할 사)자가 '생각'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囟자는 사람의 '정수리'를 그린 것이다. 옛사람들은 사람의 정수리에는 기가 통하는 숨구멍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囟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졌었다. 그러니 惇자는 머리(囟)와 마음(心)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깊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囟자가 田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查

조사할
사

査자는 '조사하다'나 '사실 그대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査자는 木(나무 목)자와 冫(또 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冫자는 비문을 적어 놓은 묘비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차→사'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査자는 본래 '뗏목'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木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하지만 지금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조사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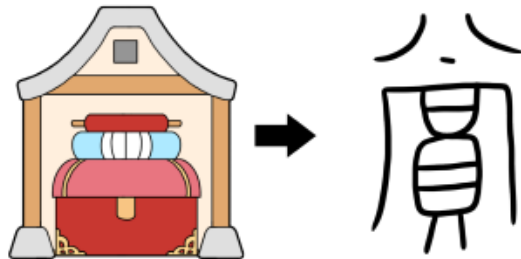
𣎵

소전

查

해서

회의문자①



賞

상줄 상

賞자는 '상을 주다'나 '증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賞자는 尙(오히려 상)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상은 재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貝자가 의미요소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尙자는 집과 창문을 함께 그린 것이다. 이렇게 집을 그린 尙자와 貝자가 결합한 賞자는 집에 재물이 놓여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상으로 받은 재물이 집 앞마당에 놓여있는 모습이 연상되는 글자이다. 賞자에 '구경하다'라는 뜻도 있으니 상을 받는 모습을 축하하며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연상된다.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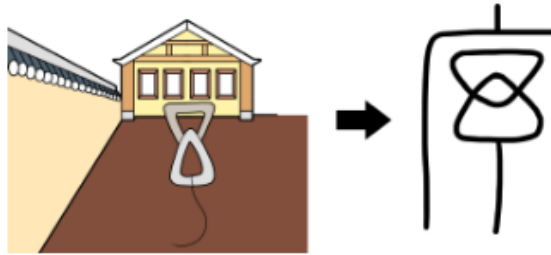
𠂔

소전

賞

해서

형성문자①



序

차례 서:

序자는 '차례'나 '질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序자는 宀(집 엄)자와 予(나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予자는 실을 감는 '실패'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여→서'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序자는 본래 '담벼락'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차례'나 '질서'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쓰이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실을 감는 도구를 그린 予자가 '차례'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도 보인다.

序

소전

序

해서

회의문자①



善

착할 선:

善자는 '착하다'나 '사이좋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善자를 보면 양과 눈이 함께 𤝵 그려져 있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답은 '양의 눈망울과 같은'이다. 뜻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식으로는 '사슴 같은 눈망울'로 해석될 수 있겠다. 보통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일컬어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졌다고 말하곤 한다. 善자는 그러한 뜻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目자 대신 言(말씀 언)자가 𤝵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였다. 이후 善자는 변화를 거듭해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𤝵

갑골문

𤝵

금문

善

소전

善

해서